

# 한국대중가요에서의 기쁨과 슬픈 감성을 위한 가사 비교 연구

## Study of Comparative Lyrics for Joy and Sad Emotions in Korean Popular Songs

권지연, 이승연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Ji-Yeon Kwon(buel2000@hanmail.com), Seungyeon-Seny Lee(senylee01@gmail.com)

### 요약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대중음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인 음악에서 가사의 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경쾌한 감성 음악과 슬픈 감성 음악의 가사를 비교 연구하여 각각 감성 표현을 어떻게 극대화 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을 제시한다. 이로 인하여 경쾌한 감성 음악의 다양성과 슬픈 감성 음악의 한정성으로 차이점이 나타나는 특징을 입증한다.

■ 중심어 : | 경쾌한 | 기쁨 | 감정적 | 슬픔 | 대중가요 | 가사 | 감성 | 음악 추천 서비스 |

### Abstract

As popular music grows, lyrics are taking a more important part of the pop music. In the thesis suggests that to prove that each can I maximize based on the lyrics' emotions, the study compares between a sense of cheerful and sad songs. For this reason, many emotional words were extracted by various word expressions in the cheerful songs and limited expressions of grief sensibilities were shown through relatively small amount of emotional words in the sorrowful songs.

■ keyword : | Cheerful | Joy | Mood | Sad | Korean Pop Music | Lyric | Emotion | Music Appreciation |

## I. 감성 연구

### 1.1 감성 이론의 배경

음악을 만들거나 들을 때에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음악 안에서는 더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다. 인간의 감정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한다[1].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 인간의 기본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묘사하여 6가지로 체계화하였다. 폴 에

크만의 기본 감정 6가지는 Surprise, Fear, Anger, Sadness, Disgust, Happiness이며[2], 이 6가지의 기본 감정을 얼굴 표정의 변화로 나타남을 연구하였고 각 문화간의 차이와 기본 감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기본 감정이라는 개념은 데카르트가 주장한 여섯 가지 기본 정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보편적인 기본 감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유래한다. 다윈이 말한 보편적인 감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면 '빅 식스(big six)'라고 하는데 이는 에크만의 기본 감정 여섯 가지와 같다. 에크만의 여섯 가지 기본 감정과 같이 유교 문화권의 회로에락이나 칠

\* 본 논문은 한국콘텐츠학회 2014 추계 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입니다.

접수일자 : 2015년 01월 06일

수정일자 : 2015년 01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2월 03일

교신저자 : 이승연, e-mail : senylee01@gmail.com

정에 속한 감정 중 공통적인 것은 기쁨, 슬픔, 공포, 분노 등으로 볼 수 있다[3].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공통 감정 중 기쁨과 슬픔의 감정표현을 한국 대중가요의 가사를 통해 비교 연구한다. 본 연구 이전 연구 사례로는 한국인의 정서 표현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연구한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4]’,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5]’의 기존 문헌을 통하여 형용사와 감정 단어들의 분류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국어의 사전적 의미로서 한국 정서표현을 접근한 방식으로 음악에서 가사 중에 사용한 감정단어들을 정서표현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그 기준이 음악의 여러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이에 분석한 400곡은 감성 단어가 음악에 사용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한 연구이다.

### 1.2 감성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음악을 7개 감성테마로 분류하고 있는 국내 음악 추천 사이트 엠넷(Mnet)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엠넷을 선택한 이유는 4개 이상의 다른 국내 가요 추천 사이트와 비교한 결과 음악 추천 방식이 테마별 감성 분류로 되어있으며, 현재 음악추천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접근한 유일한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그 7가지 감성 분류 중 ‘경쾌한’ 테마와 ‘감정적’ 테마에서 각각 200곡씩 모두 400곡을 선정하여, 기쁨과 슬픔이라는 상위구조 감정군으로 가사 표현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방법은 400곡의 가사 중 가장 기본적으로 쓰인 기본 형용사를 모두 추출한다. 2차 방법은 인간의 감정이 들어간 감정형용사, 감동동사, 감정명사를 추출하고 분류하여 감정군을 만든다. 3차 방법은 소망이나 희망, 바라는 표현을 하는 단어들을 따로 분류하여 배제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현재에는 이루어진 감정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즐거움이나 슬픔의 결과적 감정으로 분류하는데 변수가 생길 것이 우려되어 분리하여 집계하였다. 4차 방법에서는 사랑의 감정단어를

분류하였는데,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변화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고려하여 구분하였으며, 방법적으로는 3차 분류와 마찬가지로 배제와 포함의 경우로 진행하였다. 5차 방법은 가사 전체 스토리 내용에서의 감정 흐름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혹은 결과적으로 감정을 호소하는 것을 기쁨과 슬픔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6차 방법에서는 위의 2차, 3차, 4차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데이터와 5차 방법에서 얻어진 결과 값이 얼마나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 비교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진행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단어 분류에 따른 연구 방법

진행차수	연구 진행 방법
1차	전체 기본 형용사 추출 분류
2차	감정 단어 분류
3차	소망 표현 단어: 소망 결과 여부에 따른 분류
4차	사랑 단어 내용에 따른 분류
5차	스토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6차	2차 3차 4차를 포함하여 5차와의 비교 분석

### 1.3 감정군집 분류 방법



그림 1. 10가지 감정군집 모델

심리학자 제임스 A. 러셀은 인간의 감정을 각성과 이완 차원, 쾌와 불쾌 차원으로 나누어 객관적으로 체계화시켜 연구한 사람으로 본 연구의 두 가지 감성을 비교 분석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러셀의 감정원형 모델에 의거하여 연구한다. 러셀의 감정원형은 가로축과 세로축을 중심으로 나타난 감정들을 비슷한 감정으로 묶어서 28가지의 감정들로 표현하였고, 본 연구는 이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감정군을 각 사분면에서 한글

로 번역하여 10가지의 감정군으로 나눈다. 이때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감정 비교가 목적이므로 각 사분면에서의 대표적인 감정군을 10가지의 감정군으로 집약하여 연구함을 밝힌다[6]. 각각의 감정 가사에서 추출한 하위 단어들에 다음과 같은 감정군집의 분류 방법으로 분석한다.

## II. 두 감성의 대중가요 가사 분석

### 2.1 1차 분류: 전체 기본 형용사

#### 2.1.1 경쾌한 감정 음악 1차 분류

경쾌한 감정 음악에서 기본적으로 쓰인 전체 형용사는 총 311개의 다양한 형용사들이 나타난다. 이는 경쾌한 감정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들을 구사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경쾌한 감정 음악에서 기본 형용사 순위 분석 결과

순위	1	2	3	4	5
전체 형용사군	좋다	많다	다르다	예쁘다	아프다
곡 수	52	49	45	35	34

전체 형용사에서는 ‘좋다’가 1위로 200곡 중 52곡에서 도출된다. 2위로 ‘많다’, 3위로 ‘다르다’, 4위 ‘예쁘다’, 5위 ‘아프다’ 등의 형용사들이 도출된다. 이는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모든 형용사를 추출한 결과로 ‘많다’, ‘다르다’ 등과 같이 단어들도 나타나며, 또한 ‘예쁘다’, ‘아름답다’ 등의 외적인 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좀 더 밝고 가볍게 경쾌한 감성을 표현하는 특징이 보인다.

#### 2.1.2 슬픈 감정 음악 1차 분류

슬픈 감정 음악에서도 기본적으로 쓰인 전체 형용사는 총 242개의 형용사들이 나타난다. 경쾌한 감정 음악 보다는 형용사의 수가 적게 도출된다. 이는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보다는 한정적인 단어 표현이 슬픈 감정을 좀 더 집약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슬픈 감정 음악에서 기본 형용사 순위 분석 결과

순위	1	2	3	4	5
전체 형용사군	아프다	슬프다	많다	행복하다	힘들다
곡 수	106	53	51	42	42

‘아프다’가 1위로 200곡 중 106곡에서 도출된다. 2위로 ‘슬프다’, 3위로 ‘많다’, 4위 ‘행복하다’, 5위 ‘힘들다’ 등의 형용사들이 도출된다. 이는 경쾌한 감정 음악에서는 ‘많다’, ‘다르다’ 등의 기본 형용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슬픈 감정 음악에서는 기본 형용사의 빈도수보다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들이 높은 분포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 2.2 2차 분류: 감정 단어

1차에서 기본적인 형용사를 모두 추출한 후에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추출한다. 여기서는 형용사 외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와 명사도 추출한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비유적, 은유적인 표현도 여기에 포함되어 분류한다.

#### 2.2.1 경쾌한 감정 음악 2차 분류

경쾌한 감정 음악에서 쓰인 감정 단어는 총 251개의 다양한 감정 단어들이 나타난다. 전체 기본 형용사가 다양한 만큼 인간의 감정을 다룬 감정단어들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인간의 감정을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경쾌한 감정 음악의 감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경쾌한 감정 음악에서 감정 단어 순위 분석 결과

순위	1	2	3	4	5
감정 단어군	웃다	울다	좋다	행복하다	아프다
곡 수	76	75	52	40	36

이렇게 도출된 감정 단어 중 ‘웃다’가 76곡에 1위로 제일 많은 곡에서 나타나고, 2위로는 ‘울다’, 3위로 ‘좋다’ 등의 단어들 나타난다. 기쁘고 긍정적인 단어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울다’,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등의 부정적이고 슬픈 단어들도 상위권에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슬픈 회상 표현과 아픈 기억의 표현들로 인하여 부정적인 단어들의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감정 단어만을 추출한 후 각 단어들을 두 가지의 상위 감정군집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 감정 단어의 감정군 분석 결과

기쁨(긍정)	슬픔(부정)	동등	없음
104	86	8	2

감정 단어로만 볼 때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는 기쁘고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추출된 곡이 104곡, 슬프거나 부정적인 곡이 86곡으로 2차 분류는 감정단어 자체만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도 슬프거나 괴로움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 2.2.2 슬픈 감성 음악 2차 분류

슬픈 감성 음악에서 쓰인 감정 단어는 총 139개의 감정 단어들이 나타난다. 전체 기본 형용사의 수가 적은 만큼 슬픈 감성 음악에서 감정 단어 역시 한정적으로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슬픈 감성 음악에서 감정 단어 순위 분석 결과

순위	1	2	3	4	5
감정 단어군	울다	아프다	웃다	그립다	슬프다
곡 수	196	126	90	67	63

1위로 ‘울다’가 196곡으로 제일 많은 곡에서 나타나고, 2위로는 ‘아프다’와 3위로 ‘웃다’ 등의 단어들이 도출된다. 슬픈 감성 음악에서도 ‘웃다’, ‘행복하다’ 등의 기쁘고 긍정적인 단어들이 슬픔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기쁘거나 행복했던 과거의 표현들로 인하여 슬픔을 부각시키고 있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표 7. 슬픈 감성 음악에서 감정 단어의 감정군 분석 결과

기쁨(긍정)	슬픔(부정)	없음	동등
38	160	1	1

슬픈 감성 음악에서는 기쁘고 긍정적인 단어들이 추출된 곡이 38곡, 슬프거나 부정적인 곡이 160곡으로 거의 5배수나 많게 부정적이거나 슬픈 감정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슬픈 감성 음악에서도 역시 전체적으로는 슬픈 내용의 음악일지라도 기쁜 단어들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에 있어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의 상실감과 부재로 슬픔을 더욱 가중한 표현으로 슬픈 감정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기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 2.3 3차 분류: 소망 표현 단어

소망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미래지향적이고 현재의 이루어진 감정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어들을 배제하고 분석한 경우와 이 단어들을 포함한 경우를 비교 분석한다.

#### 2.3.1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의 3차 분류

표 8.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 소망 표현 단어 분석 결과

	3-1차: 소망 표현 단어만 추출	3-2차: 3-1차 + 2차의 감정 단어
기쁨(긍정)	79	111
슬픔(부정)	32	79
없음	84	1
동등	5	9

3-1차의 소망 표현 단어로만 분류한 경우 기쁘거나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추출된 곡이 79곡, 슬프거나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추출된 곡이 32곡으로 분석된다. 소망 표현이 아예 추출되지 않은 곡이 84곡으로 많이 나왔고 동등하게 분포된 곡이 5곡으로 분석된다. 소망 표현은 ‘만나고 싶다’, ‘원하다’ 등의 미래의 긍정적인 이루고 싶은 표현과 ‘보고 싶다’ 등의 그리움을 표현하거나 ‘도망가고 싶어’, ‘잊고 싶어’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타난다. 이는 경쾌한 감성이지만 과거의 슬픔을 기억함으로써 바라는 바를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2차에서와 같이 소망표현이 2차의 감정 단어를 포함한 경우와 3-1차에서와 같이 소망표현 단어들로만 구성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음악 속 가사의 구체적인

단어 사용이 그 내용 전달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의 소망적인 표현, 즉 바라는 것을 나타내는 감정이 많이 드러남으로 소망 표현에 감정 단어들이 풍성해지고 좀 더 경쾌한 감성을 기쁘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3.2 슬픈 감성 음악에서의 3차 분류

표 9. 슬픈 감성 음악에서 소망 표현 단어 분석 결과

	3-1차: 소망 표현 단어만 추출	3-2차: 3-1차 + 2차의 감정 단어
기쁨(긍정)	23	30
슬픔(부정)	90	164
없음	82	1
동등	5	5

슬픈 감성 음악에서는 기쁘거나 긍정적인 소망표현 단어의 사용이 23곡, 슬프거나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이 90곡으로 분석된다. 소망 표현이 아예 없는 곡이나 동등하게 소망표현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곡의 집계는 경쾌한 감성음악에서 나타난 결과 값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슬픈 감성 음악에서도 기쁜 감정의 소망 표현이 도출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은 슬프지만 미래의 긍정적인 바람의 표현을 강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픈 감성 음악의 3-2차를 살펴보면 경쾌한 감성음악의 3-2차에서의 상위 감성군인 기쁨과 슬픔의 분류와는 확연하게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의 소망 표현이 긍정적인 미래지향적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면, 슬픈 감성 음악에서의 소망 표현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거나 미련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2.4 4차 분류: 사랑 단어 표현

사랑이라는 주제는 넓고도 광범위한 감정으로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표현을 표출할 수 있다. 음악 속 가사에서는 남녀 사이의 사랑과 증오, 후회나 그리움의 사랑 표현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 단어를 모두 따로 추출하여 분류한다.

### 2.4.1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의 4차 분류

표 10.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 사랑 단어 표현 분석 결과

	4-1차: 사랑단어 표현만 추출	4-2차: 4-1차 + 3-2차의 경쾌한 감성 분류
기쁨(긍정)	86	120
슬픔(부정)	44	74
없음	64	1
동등	6	5

경쾌한 감성 음악 군에서는 사랑 단어로만 추출한 경우 기쁘거나 긍정적인 곡은 86곡으로 슬프거나 부정적인 곡의 44곡 보다 약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4-2차와 같이 4-1차를 포함한 2차의 감정 단어와 3차의 소망 표현 단어로 구사한 경우는 좀 더 경쾌한 감성 음악의 내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사랑 표현에 있어서도 경쾌한 감성 음악은 ‘반하다’, ‘끌리다’, ‘들뜨다’ 등의 밝고 기쁜 사랑의 설렘 표현들이 경쾌한 감성을 부각시킨다. 4-2차와 같이 사랑 표현과 감정 단어, 소망 표현을 모두 포함한 경우는 5차의 스토리의 내용상 분류의 분석 결과와 가장 근접하게 나타난다. 이는 음악 검색 추천의 경우 단어 자체만으로 검색된 경우보다 좀 더 정확한 음악 검색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2.4.2 슬픈 감성 음악에서의 4차 분류

[표 11]에서와 같이 슬픈 감성 음악 군은 경쾌한 감성의 음악과는 다르게 기쁨과 슬픔 감정군의 차이가 아주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쁘거나 긍정적인 곡에 쓰인 사랑표현이 21곡인 반면, 슬프거나 부정적인 곡에서는 사랑표현이 거의 7배나 많은 137곡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4-1차의 사랑 단어와 2차의 감정 단어, 3차의 소망 표현 단어를 모두 포함한 4-2차에서도 보이는데, 슬픈 곡이 거의 9배에 가깝게 많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슬픈 감성 음악에서 사랑 표현이 미련이나 아픔, 그리움 같은 표현들이 슬픔으로 사랑을 미화시키는 표현 방법으로 한국인의 정서적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4]이 한국가요의 가사에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슬픈 감성 음악에서 사랑 단어 표현 분석 결과

	4-1차: 사랑 단어 표현만 추출	4-2차: 4-1차 + 3-2차의 슬픈 감성 분류
기쁨(긍정)	21	20
슬픔(부정)	137	176
없음	40	0
동등	2	4

### 2.5 5차 분류: 전체 가사 맥락에 따른 스토리

위의 2차에서 4차까지의 분류들이 텍스트 안에서의 국어적 정서로 바라본 단어의 역할 분류라고 한다면, 5차 분류는 가사 전체의 전후 내용의 맥락을 살펴보고 스토리로 본 상위 감정군의 분류이다. 이러한 방법은 음악이라는 중요하고 커다란 범주에 감성 요소를 연결하여 대중음악 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폭넓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사의 내용이 더 세부적으로 스토리상의 감정 변화를 어떻게 구분하고 연결하는지에 관한 분석을 각 곡의 형식적 분류를 통하여 기준을 잡아[7]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한다.

#### 2.5.1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의 5차 분류

표 12. 경쾌한 감성 음악의 스토리 분류에 따른 집계

기쁨(긍정)의 곡 수	126
슬픔(부정)의 곡 수	74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 밝고 긍정적인 내용의 음악이 126곡, 슬프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음악이 74곡이 나타나는데, 슬픈 내용이지만 리듬이나 멜로디를 빠르고 밝게 표현함으로써 슬픈 감정이 해소되거나, 반의법적 표현을 통해 슬픈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표 13. 곡 형식에 따른 경쾌한 감성 음악 가사 분석 결과와 10가지 감정군 모델에 따른 분석 결과

순위	1	2	3	4
감정군	흥분	기쁨	행복	슬픔
곡 수	46	18	11	9

곡 형식에 따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의 패턴이 나왔으며[7], 이러한 분류에 준거하여 가사의 전체적

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10가지 감정군 모델에 적용해 보면,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는 흥분이 46곡, 기쁨이 18곡, 행복이 11곡, 슬픔이 9곡 등으로 도출된다. 경쾌한 감성 음악의 곡형식이 VPC<sup>1</sup>의 패턴에서는 “흥분”이나 “기쁨”, “행복” 등의 단순화된 감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감정군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가 하면, VC의 패턴에서는 “괴로움”으로 시작하여 “슬픔”을 나타내다가 다시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기쁨 감정을 나타냄에 있어 “괴로움”을 먼저 표현하여 뒤에 기쁨 감정을 표현하는 상대적 반전 표현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간의 감정 중 기쁨 감정을 단순하게 기쁘다고 느끼기 보다는 앞서 힘들거나 괴롭고 슬픈 감정을 먼저 들어냄으로 그 이후에 오는 기쁨 감정이 더욱 역동적이고 짧은 가사 안에서 최고조의 감정을 만끽하기에 적절한 표현 방법을 증명하고 있다.

#### 2.5.2 슬픈 감성 음악에서의 5차 분류

표 14. 슬픈 감성 음악의 스토리 분류에 따른 집계

기쁨(긍정)의 곡 수	0
슬픔(부정)의 곡 수	200

슬픈 감성 음악에서는 슬프거나 부정적인 곡이 200곡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4차의 소망 표현 단어들과 많은 관련이 있다. 5차의 슬픈 감성 음악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희망과 바람을 표현하는 내용이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지지 않은 스토리 전개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시점을 기준에서 모두 슬픈 감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표 15. 곡 형식에 따른 슬픈 감성 음악 가사 분석 결과와 10가지 감정군 모델에 따른 분석 결과

순위	1	2	3	4
감정군	슬픔	슬픔 - 괴로움 - 슬픔	괴로움 - 슬픔 - 괴로움	괴로움
곡 수	56	49	21	9

1 4가지 패턴은 VPC, PC, 코러스 선배치와 그 외의 패턴으로 되어있으며, V는 벨스, P는 프리코러스, C는 코러스의 약자이다. Ibid, pp.14-17.

곡 형식에 따른 4가지의 패턴을 바탕으로 슬픈 감성 음악에서는 슬픔 56곡, 슬픔-괴로움-슬픔 49곡, 괴로움-슬픔-괴로움 21곡, 괴로움 9곡 등으로 도출된다. 경쾌한 감성 음악이 한 가지의 감정군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면, 슬픈 감성 음악은 감정의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 한 가지의 감정 진행으로만 나타나는 감정군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전체적으로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슬픔”만을 표현하는 감정보다는 “괴로움”을 동반한 표현의 “슬픔”이 더 슬픈 감정을 극대화시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의 감정은 슬프지만 한때 과거 행복했거나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슬픈 감정을 더 슬프게 구사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슬픈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기쁘거나 행복하고 좋았던 경험을 상실했을 때의 슬픈 감정이 더 고조됨을 알 수 있다[3]. 또한 슬픈 감정을 나타냄에 있어 ‘힘들다’, ‘아프다’라는 괴로움의 하위 감정군의 표현들이 ‘슬프다’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좀 더 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6 6차 분류: 2차, 3차, 4차, 5차의 분석결과 비교

2차 감정 단어의 감정군 [표 5]와 [표 7], 3차의 소망 표현 단어의 감정군 [표 8]와 [표 9], 4차의 사랑 단어의 감정군 [표 10]과 [표 11]에서 두 가지 감성으로 분석되었는데, 각 차시의 두 가지의 결과 값을 5차의 스토리 분류에 의한 감정군 [표 12]과 [표 14]를 다시 재비교군을 형성하여 순차적인 분석 진행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표 16. 2차, 3차, 4차, 5차의 분석결과 비교

	감정군	감정 단어	감정+소망 단어	감정+소망+사랑 단어	스토리
경쾌한 감성음악 곡수	기쁨	104	111	120	126
	슬픔	86	79	74	74
	동등	8	9	5	0
	없음	2	1	1	0
슬픈 감성음악 곡수	기쁨	38	30	20	0
	슬픔	160	164	176	200
	동등	1	5	4	0
	없음	1	1	0	0

두 감성 모두 감정 단어만의 분석보다는 소망 표현과 사랑 단어가 포함된 경우가 각각의 스토리 분류와 근접

한 도출 결과가 나타난다. 경쾌한 감성 음악은 거의 근접하게 일치함이 나타나지만, 슬픈 감성 음악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슬픈 감성 음악에서 감정 단어만의 분류보다는 소망 표현과 사랑 단어가 더해진 경우 스토리 분류에 근접한 결과가 나타난다.

경쾌한 감성 음악은 감정 단어에 소망이나 바람의 표현과 사랑에서도 기쁘고 설레는 사랑의 표현이 더해져서 좀 더 기쁘고 밝은 경쾌한 감성을 나타낸다. 슬픈 감성 음악도 감정 단어로의 분석에서는 기뻐던 과거나 미래의 바람을 긍정적인 단어들로 표현함으로 기쁜 단어들도 도출되고 이로 인하여 스토리의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III. 경쾌한 감성 음악과 슬픈 감성 음악의 특징

3.1 두 감성 음악 가사군의 공통 단어

경쾌한 감성 음악과 슬픈 감성 음악에서 많이 분포한 감정 단어들을 가장 많이 분포한 순서부터 10곡 이상의 곡을 선출한다.

표 17. 두 감성 음악 가사의 공통된 단어

감정 단어	웃다	울다	좋다	행복하다	아프다
경쾌한	76곡	75곡	52곡	40곡	36곡
슬픈	90곡	196곡	32곡	45곡	126곡
감정 단어	좋아하다	힘들다	슬프다	싫다	괜찮다
경쾌한	36곡	28곡	26곡	21곡	20곡
슬픈	10곡	42곡	63곡	20곡	20곡

이때의 두 감성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위 20위까지의 단어들도 두 테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다. 각각의 테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순위만 변경되고 공통적인 단어들의 분포가 특징적으로 도출된다. 두 개의 상반된 감성이지만 많이 추출되는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을 한 가지의 감정군으로만 치우쳐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쾌한 감성 음악을 표현함에도 슬프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경쾌한 감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슬픈

감성을 표현함에도 기쁘고 긍정적인 과거의 그리움의 표현들이 슬픔을 좀 더 애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 3.2 두 감성 음악 가사군의 공통 단어 vs. 감정군 분포

두 감성의 공통된 단어들의 감정군을 러셀의 감정원형에 근거하여[6]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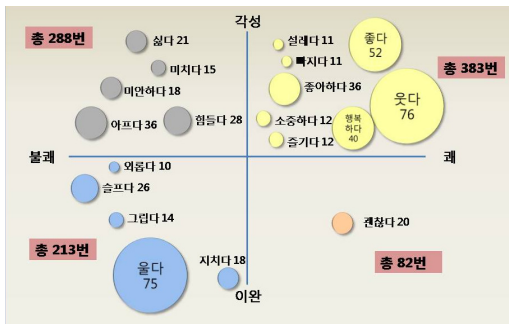


그림 2. 경쾌한 감성 음악 공통 단어 감정군 원형

위의 도표는 쾌와 각성 사이를 1사분면으로 기준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2에서 4사분면을 이룬다. 경쾌한 감성 음악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1사분면을 보면, “흥분”의 감정군에는 ‘설레다’ 등의 22가지 하위단어들이 있으며, “기쁨”의 감정군에는 ‘웃다’ 등의 25가지 하위 단어, “행복”의 감정군에는 ‘행복하다’ 등의 16가지의 하위 단어들로 구성되어 총 383번의 기쁨과 긍정. 다소 각성에 준하는 단어들이 도출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적은 감정 단어군을 포함하고 있는 4사분면은 “만족”에 해당하는 ‘괜찮다’ 등의 하위구조 단어가 20가지, 편안한 감정군에 총 12가지의 하위 구조 단어들이 총 82번 도출되었다. 경쾌한 음악에서 슬픈 감성을 표현함으로 생긴 3사분면의 “지침” 감정군에는 ‘지치다’ 등의 19가지 하위 단어, “슬픔” 감정군이 포함하는 ‘울다’ 등의 30가지 하위 단어가 총 213번 나타났으며 역시 경쾌한 음악에서의 과거의 괴로움 등을 표현하고 있는 2사분면은 “괴로움” 감정군에 ‘아프다’ 등의 44가지 하위 단어, “분노” 감정군에 ‘싫다’ 등의 25가지 하위 단어, “공포” 감정군에 ‘두렵다’와 같은 6가지의 하위 단어들 이 총 288번 도출됨으로 슬픔의 다양한 감정군들을 통

한 감성 표현을 분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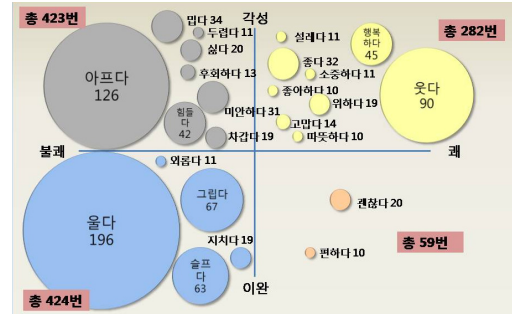


그림 3. 슬픈 감성 음악 공통 단어 감정군 원형

슬픈 감성 음악에서는 1사분면 “흥분”의 감정군에 ‘설레다’ 등의 4가지의 하위 단어, “기쁨”의 감정군에 ‘웃다’ 등의 11가지의 하위 단어, “행복”의 감정군에 행복하다 등의 13가지의 하위 단어가 총 282번 나타났는데, 경쾌한 감성 음악의 383번의 도출횟수와 비교하여 보면 많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슬픈 감성 음악이지만 슬픔을 표현함에 있어서 과거의 행복하고 기뻐던 표현들로 인하여 슬픔을 부각시킴으로 282회나 나오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4사분면 “만족”의 감정군에 ‘괜찮다’ 등의 11가지의 하위 단어, 편안함의 감정군에 ‘편하다’ 등의 4가지의 하위 단어로 총 59번으로 경쾌한 감성 음악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가장 적은 단어의 분포도를 보인다. 3사분면 “지침”의 감정군에 ‘지치다’ 등의 9가지의 하위 단어, “슬픔”의 감정군에 ‘울다’ 등의 27가지 하위 단어로 총 424번이 나타나는데, 2사분면의 “괴로움”의 감정군에 ‘아프다’ 등의 29가지의 하위 단어, “분노”의 감정군에 ‘밉다’ 등의 20가지의 하위 단어, “공포”의 감정군에 ‘두렵다’ 등의 4가지의 하위 단어들 이 총 423번 도출되는 것과 함께 슬픈 감성 음악의 주요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분포도로 보면 경쾌한 감성 음악과 슬픈 감성 음악의 감정 분포도가 1, 2, 3사분면에서 확연히 차이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경쾌한 감성 음악은 기쁘고 밝은 감정군인 1사분면에 하위 단어들 이 많이 나타나고, 슬픈 감성 음악은 어둡고 슬픈 감정군인 2, 3사분면에 하위 단어들 이 많이 나타남을 보인다. 경쾌한 감성



음악은 한 번의 횡수로 다양한 단어들 많이 나타남으로 전체 추출 단어의 빈도수는 크지 않지만, 슬픈 감성 음악은 한정된 종류의 단어로 많이 반복되어 쓰임으로써 빈도수의 횡수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두 감성의 감정 원형으로 하위 단어들의 분포도를 보면 두 감성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 IV. 결론

본 논문은 경쾌한 감성 음악과 슬픈 감성 음악의 표현과 특징을 분석하여, 각각의 감성이 지닌 가사에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경쾌한 감성 음악의 단어 다양성과 슬픈 감성 음악의 단어 한정성이다. 경쾌한 감성 음악은 251개의 다양한 종류의 단어들 표현이 나타나고, 슬픈 감성 음악은 139개의 한정된 종류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집약적인 사용으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만 유일하게 추출된 단어들 144개인 반면, 슬픈 감성 음악에서의 유일 단어는 38개로 나타난다. 이는 경쾌한 감성 음악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자칫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경쾌한 감성을 화려한 표현으로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스토리의 전체적인 감정 흐름을 보면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는 한 가지의 감정 흐름이 보이는 반면, 슬픈 음악에서는 다양한 감정 변화의 흐름으로 연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경쾌한 감성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흥분과 기쁨 등의 한 가지 감정으로 진행되는 반면 슬픈 감성 음악에서는 부정적이거나 슬픈 내용 안에서도 “슬픔-괴로움-슬픔”, “괴로움-슬픔-괴로움”, “만족-슬픔”, “슬픔-분노-슬픔” 등의 복잡한 감정 흐름의 구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슬픈 감성을 표현함에 있어 괴로움의 하위 단어들 표현을 기반으로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슬픈 감성을 좀 더 고조시키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두 감성 모두 사랑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타났는데 경쾌한 감성 음악에서의 사랑 표현은 ‘반하

다’, ‘빠지다’, ‘끌리다’ 등의 사랑의 설렘 표현들이 다수 추출되는 반면, 슬픈 감성 음악에서의 사랑 표현은 ‘그립다’, ‘후회하다’, ‘아프다’ 등의 슬픔과 괴로움의 하위 단어들 다수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랑 표현의 음악에서는 설렘과 같은 사랑의 시작을 표현하는 것이 경쾌한 감성을 더욱 부각시켰고, 아픔과 같은 사랑의 이별을 표현하는 것이 슬픈 감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가사 분석은 곡의 형식이나 화성 진행 패턴 등에서 더욱 깊은 연구범위를 다루었다[8]. 현재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대중 가요의 신나는, 어두운, 편안한 등의 다른 감정적 측면의 음악과 감성적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토대로 음원 사이트의 감성분류가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류되도록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중가요의 디지털콘텐츠화를 통해 음악연구의 정보와 그 결과물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되어지도록 좀 더 많은 자료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9]. 본 연구를 통하여 두 다른 감성의 음악 작사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각각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의 선택과 조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대중가요 작사에 감성적 단어의 활용이 음악의 형식이나 템포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과 좀 더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참고 문헌

- [1]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s.v. “감정”, <http://www.doopedia.co.kr/>
- [2] P. Ekman, “Universal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19, pp.207-282, 1972.
- [3]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 [4] 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Vol.52, No.1, pp.85-117, 2008.

- [5] 박인조, 민경환,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9, No.1, pp.109-129, 2005.
- [6] James A. Russell,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No.6, pp.1167-1178, 1980.
- [7] 김셋별, *상반된 두 감정과 음악적 요소의 상관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8] 권지연, *대중가요에서의 감정 표현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9] 정지영, “교육적 콘텐츠로의 한국 대중가요의 활용과 필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4, pp.174-185, 2012.

이 승 연(Seungyon-Seny Lee)

정회원



- 2002년 6월 : 스탠포드대학교 컴퓨터음악작곡 박사
- 2005년~2008년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2009년 ~ 현재 :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

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음악연구, 융합인재교육, HCI

### 저 자 소 개

권 지 연(Ji-Yeon Kwon)

정회원



- 2004년 2월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음악 학사)
- 2006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음악 학사)
- 2015년 2월 :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실용음악 전공(음악학 석사)

<관심분야> : 대중가요연구, 감정 음악, 보컬테크닉